

미 상무부 관계자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촉구

중국이 성행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월리엄 래시 미 상무부 차관보가 지적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래시 차관보는 만일 중국 정부가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중국 기업들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 내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행위로 전세계가 입는 손실이 5백억 달러가 넘고 미국만 2백억 달러에서 2백40억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업적이 여러 비양심적인 해적행위로 훼손됐으며 이는 향후 경제와 중국의 신뢰에 면칠을 하게 돼 투자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1995년 위조품 제조 및 유통업자를 엄단하겠다고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불법복제 상품 제조국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한편 중앙정부가 위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언은 하고 있지만 지역 정부 관계자들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으며 제조업체들이 처벌되지 않도록 관련 증거도 없애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동남부 원저우시는 수십만개의 가짜 지퍼 라이터를 만들다 불잡힌 공장의 경영진들에 대한 증거를 없애줬다는 사실을 실제로 들었다. 또한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법을 집행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는 정역감이며 1백만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돼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낀다'고 덧붙였다.

일본, 기술특허로 흑자 급증

일본의 특허사용료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특허사용료 수지가 흑자(1천4백91억 엔)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특허사용료가 1천3백87억 엔으로 벌써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마이니처신문이 지난 8월 3일 보도했다.

특허사용료는 크게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사용료 '공업소유권 사용료'와 소프트웨어 등 지식에 대한 사용료인 지적재산권료로 나뉜다. 일본의 특허수지가 호전된 것은 이 가운데 '공업소유권 사용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업소유권 사용료'가 급증하는 것은 일본 자동차업체 해외 자회사의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다. 자회사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제조기술의 특허를 갖고 있는 일본의 본사에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료 '공업소유권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생산이 늘어날수록 이 공업소유권 사용료를 많이 내야하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에 따르면 특허사용료는 2002년에는 7백33억 엔으로 적자였지만 2003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다. 배경은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사용료인 '공업소유권 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는데 있는데 99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10% 가량 증가해 왔다. 대신 외국에 낸 공업소유권 사용료는 1%대에 그쳤다.

베트남 '지적재산권 보호 협약' 가입

베트남이 10월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지난 8월 9일 보도했는데 이는 내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만성적인 불법복제 행위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다.

1996년 체결된 베른협약은 일반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사후 50년간, 시청각 저작물에 대해서는 창작·발표된 때부터 5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